

아동의 또래 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The Relations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최미경(Mi-Kyung Choi)¹⁾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with a sample of 494 elementary school students (293 boys and 231 girls) living in Pusan.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s and regressions. Children's direct/indirect peer victimiz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loneliness. Expecially, indirect peer victimization was more positively related to loneness than direct peer victimization was. Children's self-esteem was negatively related to loneliness. Children's direct/indirect peer victimization were negatively related to self-esteem. Expecially, direct peer victimization was more negatively related to self-esteem than indirect peer victimization was. In boys, self-esteem tended to play a perfectly mediating role between indirect peer victimization and loneliness. In girls, self-esteem tended to play a partially mediating role between direct peer victimization and loneliness.

Key Words : 또래 괴롭힘(peer victimiza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외로움(loneliness).

1. 서론

한 개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결핍감인 외로움은 흔히, 정서적 외로움(emotional loneliness)과 사회적 외로움(social loneliness)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Weiss, 1973), 정서적 외로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친밀한 애착이 결여된 것으로부터 나오며, 사회적 외

로움은 사회관계망의 결핍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로부터 초래된다. 특히, 사회적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외되거나 소속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되며(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Cassidy & Asher, 1992; Pwplau & Perlman, 1982), 이러한 정서적 단절감은 끝없는 자기비하와 상실감,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급기야는 사회에서 심각한 부적응

¹⁾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겸임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Choi, Gangchon Apt. 105-2003, Ichon 1-dong,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dmkchoi@hanmail.net

을 야기하기 쉽다(Rubenstein & Shaver, 1982). 이처럼 심리,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야기하는 외로움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Cassidy & Asher, 1992)을 통해 아동의 경우도 성인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들은 외로움을 ‘혼자 버려진 느낌’, ‘혼자 남겨졌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것 같은 것’, ‘이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한 명’, ‘항상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성인의 보고와 매우 유사하다(Jones, 1985). 따라서,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함께 학교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한 사회화를 이루지 못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모든 정신적, 행동적 병리의 통합적인 근원으로서 나타나는 외로움(Jones, Hobbs, & Hockenbury, 1982)에 관한 연구는, 성장기의 부적응 행동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외로움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보고한 연구들(Brennan & Auslander, 1979; Hartog, 1980; Zakahi & Duran, 1982)에 비해, 아동기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수줍음(도현심, 1999)이나 인기도(정영인, 1988)와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에 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로움에 관해 보다 심층적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외로움을 특정 형태의 관계 부족으로 나타나며 친밀한 애착관계나 의미 있는 우정,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으로 발생하는 감정(정영인, 1988)으로 볼 때,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위 환경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의 외로움과 관련된 연

구들은 부모와의 애착 및 양육행동과 가족기능이나 또래관계와 외로움과의 관계에 대해 보고한다(도현심, 1996, 1999; 박선영 · 도현심, 1998; 정영인, 1988; Minuchoin, Rosman, & Baker, 1978; Rew, 2001; ; Stokes, 1985).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아동 후기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부모로부터 또래들에게로 이전되는 시기이므로, 가족관계 보다는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상호적인 또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아동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Sullivan, 1953), 사회측정적 지위가 낮은 아동일수록 외로움과 사회적 불만족의 감정을 더 많이 가진다고 보고된다(Asher, Hymel & Renshaw, 1984). 또한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또래 관계, 또래 지위 등 사회적 상호교류자인 친구와 관련시켜 살펴본 선행 연구들(도현심, 1996; 정영인, 1988; 최보가 · 임지영, 1999; Adher & Wheeler, 1985; Crick & Ladd, 1993; Parkhurst & Asher, 1992)은 외로움이 또래관계의 불만족 또는 배척아, 고립아, 위축아 등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아동의 정서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래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또래공격의 대상이 되는 또래피로움(peer victimization)(최미경, 2000)을 당하는 아동들도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고 부정적인 또래지위를 갖게 된다는 보고(Boulton & Underwood, 1992; Perry, Kusel & Perry, 1988)는, 또래피로움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한다. 게다가 또래피로움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배척되는 것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Boulton & Underwood 1992; Crick & Grotpeter, 1996;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93). 실제로 또래피로움을 당하는 아동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또래관계

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감정 중 외로움과 불안을 가장 많이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다(Patterson, Kupersmith & Grieseler, 1990). 따라서, 친구관계가 보다 밀접해지고 중요성이 커지는 학령기 후기에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은 고립감의 수반과 함께 필연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직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그 유형을 때리기, 밀기, 욕하기, 별명 부르기, 말로 위협하기 등의 직접적 괴롭힘과 나쁜 소문 퍼뜨리기,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등의 간접적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과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관계를 살펴본 연구(최보가·임지영, 1999)도 그 대상을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또래괴롭힘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괴롭힘의 유형과 외로움 간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괴롭힘 이외에도, 외로움은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swick & Jones, 1981; Hojat, 1982a,b; Jones et al., 1981; Loucks, 1980; Ouellet & Joshi, 1986; Russell et al., 1980; Wheeler, Reis, & Nezelek, 1983).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을 평가하는 행동과 신념의 한 부분으로(Weiss, 1982), 불만족스런 사회적 관계와 그 상황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개인의 낮은 자아존중감, 인지적 특성, 수줍음 등은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며, 또 외로움에 대한 개인의 취약

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외로움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Weiss, 1982). 이처럼 외로움에 특별히 취약한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 진다.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사이에는 명백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확실히 어느 것인지는 모호하다. 즉,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은 양방향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의 원인인 동시에 외로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성 특성이기도 하다(Inderbitzen-Pisaruk, Clark, & Solano, 1992; Peplau, Miceli, & Morasch, 1982). 국내의 경우,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의 보고는 거의 살펴볼 수 없지만, 많은 국외 연구들이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어(Hojat, 1982a,b,c; Horowitz & French, 1979a; Jones, Freema, & Goswick, 1981; Ouellet & Joshi, 1986; Rubenstein & Shaver, 1982; Weiss, 1982)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련성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밖에,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괴롭힘을 야기한다는 보고도 있다. 즉,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자기개념, 위축,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며, 사회적으로는 자기표현 능력의 부족, 회피적 행동, 위축된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8). 특히, 자기개념이 확고해지며 또래의 영향력이 보다 큰 시기인 아동기 후기에 또래괴롭힘을 경험하

는 것은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초래한다(최미경·도현심, 2000). 한편, Rigby(1996)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자신의 취약성을 내보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슷하게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부적응의 모습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쉽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Egan & Perry, 1988; Hodges, Boivin, Bitaro & Guay, 1999).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이 그 취약성을 드러내 공격적인 아동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내면화된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더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희옥, 2002). 국외의 경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Olweus, 1978; Egan & Perry, 1998)이 보고되나, 국내의 경우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괴롭힘과 그들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도현심·최미경, 1998; 최미경·도현심, 2000)가 소수 발견될 뿐이다. 또한 또래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간에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즉, 또래괴롭힘은 아동기 심

리, 사회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외로움을 크게 경험할 수 있다(Boulton & Underwood 1992; Crick & Grotpeter, 1996;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93).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외로움을 야기하며 반대로 외로운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Russell et al., 1980; Wheeler, Reis, & Nezlak, 1983).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인성특성의 하나인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또래괴롭힘을 경험할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것이며(도현심·최미경, 1998; 최미경·도현심, 2000; Olweus, 1978; Egan & Perry, 1998), 낮은 자아존중감 또한 또래괴롭힘을 야기할 수 있다(Egan & Perry, 1988; Hodges, Boivin, Bitaro & Guay, 1999). 위와 같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간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외로움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된다. 즉,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궁극적으로 외로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또래괴롭힘, 자아존중감 등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은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여(도현심·최미경, 1998; 최미경, 2000), 남자는 직접적 괴롭힘을 여야는 간접적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도현심·최미경, 1998; 최미경, 2000; 최보가·임지영, 1999; Egan & Perry, 1998). 또한, 남자 청소년과 달리 여자 청소년의 경우만 또

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며(도현심·최미경, 1998), 또래괴롭힘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연구(최미경·도현심, 2000)에서도 남녀청소년간의 성차가 나타나 어머니 애착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높은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처럼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괴롭힘,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간의 관계를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남녀 아동 각각으로 구분하여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이 남녀 아동의 외로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괴롭힘과 남녀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외로움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외로움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부산시 Y구에 위치한 두 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94

명(남아 293명, 여아 231명, 연령별로 12세가 245명, 13세가 212명, 11세가 36명, 10세가 1명, 학년별로는 5학년이 279명, 6학년이 212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학령기 말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것은 학령기말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또래 괴롭힘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3), 이에 따라 심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사 도구

1) 또래 괴롭힘 척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는 Crick과 Bigbee (1998)의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Peer Report(SEQ-P)를 박보경(2002)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4문항과 5문항으로 구성된 2개 요인, 즉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 요인과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 요인으로 구성된다.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는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며,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 문항으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났거나 보복하고 싶어 해서 어떤 일에서 나를 따돌린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79,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90이었다.

2)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한 박선영·도현심(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자신에 의해 평가되었고,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신뢰도를 낮추는 두 개 문항(5번, 8번)을 제외하고 본 분석에 사용된 8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74였다.

3) 외로움 척도

아동의 외로움 척도는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이 만든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을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정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총 문항 수는 20 문항으로서 10문항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를, 나머지 10문항은 불만족 여부를 질문한다.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척도 개정 당시의 신뢰도 계수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20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alpha=.90$ 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3년 12월 16-27일까지 부산시 Y구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17학급을 대상으로 총 523부를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들에게 직접 배부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답이 같은 번호로 편향되어 작성되거나 많은 문항을 빼버린 경

우 등 적절치 못한 답이 들어있는 경우인 총 29부를 제외한 총 494부가 최종 분석 되었다(회수율 : 94%).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PC +11.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또래괴롭힘,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별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모델을 기초로 단순 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

남녀 아동 모두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아동의 외로움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남 : 직/간접 괴롭힘 $r=.41, p<.01/r=.46, p<.01$, 여 : 직/간접 괴롭힘 : $r=.36, p<.01/r=.41, p<.01$)(<표 1>). 즉, 남녀아동은 또래가 자신을 직접적 혹은 관계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

<표 1> 아동의 직, 간접 또래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외로움	
	남아	여아
직접 또래괴롭힘	.41**	.36**
간접 또래괴롭힘	.46**	.41**

주 : 남아는 263명, 여아는 231명임.
*** $p<.01$

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남녀아동 모두 직접적 또래괴롭힘 보다 관계적 또래괴롭힘이 외로움과 더 큰 상관정도를 나타내었다. 즉, 또래로부터 은밀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밀치기, 때리기 등의 직접적 괴롭힘 보다 정서적인 외로움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 모두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에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즉, 남녀아동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남아 : $r=-.51, p<.01$, 여아 : $r=-.64, p<.01$)(<표 2>).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외로움	
	남아	여아
자아존중감	-.51**	-.64**

주 : 남아는 263명, 여아는 231명임.
*** $p<.01$

3.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남녀 아동 모두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남 : 직/간접 괴롭힘 $r=-.40, p<.01/r=-.26, p<.01$, 여 : 직/간접 괴롭힘 : $r=-.42, p<.01/r=-.38, p<.01$)(<표 3>), 남녀아동 모두 또래가 자신을 직접적 혹은 관계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할수록

<표 3>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남아	여아
직접 또래괴롭힘	-.40**	-.42**
간접 또래괴롭힘	-.26**	-.38**

주 : 남아는 263명, 여아는 231명임.
*** $p<.01$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또한, 남녀아동 모두 관계적 또래괴롭힘 보다 직접적 또래괴롭힘이 자아존중감과 더 큰 상관정도를 나타내었다. 즉, 때리기처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은근히 따돌리는 관계적 괴롭힘 보다 자아존중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4.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이상에서와 같이, 남녀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로움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 모두 직, 간접 또래괴롭힘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을, 외로움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표 1>,<표 2>,<표 3>)). 이처럼 세 개의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는 Baron과 Kenny(1986)가 지적한 어느 한 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하게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

남아의 경우, 종속변인인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관계적 공격성의 유의한 영향력($\beta=.16, p<.05$)은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자아존중감은 남아의 간접적 또래 괴롭힘과 외로움과의 관

〈표 4〉 남아의 외로움에 대한 간접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또래괴롭힘		
간접적 괴롭힘	.05	.05
자아존중감	-.48	-.50***
R ²	.03	
F	31.43***	

주 : 남아는 263명.

*** $p < .001$

〈표 5〉 여아의 외로움에 대한 직접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또래괴롭힘		
간접적 괴롭힘	.11	.13*
자아존중감	-.58	-.58***
R ²	.42	
F	73.80***	

주 : 여아는 231명.

* $p < .05$ *** $p < .001$

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남아의 간접적 또래 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약 3%였다. 그러나, 남아의 직접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표 4>).

여아의 경우, 아동의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대한 직접적 괴롭힘($\beta = .32, p < .001$)의 영향력은, 직접적 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유의도가 낮아졌다($\beta = .13, p < .05$). 즉, 여아의 자아존중감은 직접적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직접적 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42%였다. 그러나, 관계적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 간접적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남아와 달리, 간접적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의 발생이 빈번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의 직, 간접 괴롭힘과 외로움은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남녀 아동 모두 또래가 자신을 밀거나, 때리기 등의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놀이에 끼워 주지 않는 등 관계적으로 괴롭힐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녀 아동 모두 직접적 또래괴롭힘 보다 간접적 또래괴롭힘이 외로움과 더 큰 상관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감 및 불안의 증가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Alsaker & West, 1993), 통제감 상실로 인해 심리적인 적응 문제도 겪게 된다(Taylor et al., 1983)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은 또래수용성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며 거부아가 보다 많은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연구(도현심, 1996; Cassidy & Asher, 1992)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또래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는 아동의 외로움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사회적인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남녀아동 모두 직접적인 괴롭힘보다 관계적인 괴롭힘이 외로움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는 또래괴롭힘 중에서도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 명백한 괴롭힘 순으로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연구(최보가 · 임지영, 1999; Crick & Grotpeter, 1996)를 지지한다. 즉, 외로움이 개인과의 친밀감 형성의 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또래와의 친근한 관계를 방해하거나 중단하는 간접적 괴롭힘 경험은 아동의 외로움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 모두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간에 유의한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남녀아동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외로움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중요한 개인의 특성들 중의 하나는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는 연구(Goswick & Jones, 1981; Hojat, 1982a,b; Jones et al., 1981; Loucks, 1980; Ouellet & Joshi, 1986; Russell et al., 1980; Wheeler, Reis, & Nezelek, 1983)와 일치한다. 또한, 내향성과 신경증적 성향 및 불안감, 낮은 자아존중감, 수줍음, 우울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부족 등과 같은 인성적 특성이 외로움의 발생과 지속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보고(Hojat, 1982a,b,c; Horowitz & French, 1979a; Jones, Freema, & Goswick, 1981; Ouellet & Joshi, 1986; Rubenstein & Shaver, 1982) 및 가족기능

보다는 자아존중감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보고(박선영 · 도현심, 1998)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형성, 유지하는 데 주도적이지 못하며 자기비하적 경향을 보여 외로움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남녀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아동 모두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남녀아동 모두 관계적 또래괴롭힘 보다 직접적 또래괴롭힘이 자아존중감과 더 큰 상관정도를 나타내었다. 즉, 또래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돌리며 끼워주지 않는 행동보다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욕하는 등의 행동을 경험할수록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또래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보고(도현심 · 최미경, 1998; 최미경 · 도현심, 2000)와 유사한 결과이며,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이 자아존중감 저하와 우울감 및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양원경 · 도현심, 1998; Alasker, 1993; Boulton et al., 1978), 심리적 적응문제도 보인다는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있어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아동이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 높은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직접적 또래괴롭힘이 자아존중감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는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자신 및 중요한 타인들의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또래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또래의 평가에 보다 민감해

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자아존중감을 낮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 또래를 괴롭히는 장면은 간접적 괴롭힘 보다 또래들에게 노출되기 쉬우며,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가해아 외에 다수의 학생들은 모른 채 함으로써 동조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최미경, 2000), 이를 경험한 피해아의 자아존중감은 손상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사회인지발달 면에서도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직접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가해아 및 대다수의 동조아의 태도를 통해 피해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Horowitz & French, 1979a; Jones, Freema, & Goswick, 1981; Ouellet & Joshi, 1986; Rubenstein & Shaver, 1982),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도현심 · 최미경, 1998; 최미경 · 도현심, 2000; Alasker, 1993) 및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최보가 · 임지영, 1999; Crick & Grotpeter, 1996)에 근거하여 남녀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성과 또래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관계적 공격성과 외로움과의 관계에서만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아가 경험하는 외로움은 간접적 또래괴롭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남아의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외로움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아의 경우 간접적 또래괴롭힘이 외로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간접적 또래괴롭힘과 자아존

중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남아의 간접적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아동의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성장기에 중요한 심리적인 변인으로 고려되는 자아존중감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여아의 경우, 직접적 또래괴롭힘은 자아존중감을 통제할 때 유의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여아의 직접적 또래괴롭힘은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적응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때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지 않으며 나아가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인 외로움이 감소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이와 같이, 남아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은, 남아의 경우 간접적 또래괴롭힘, 여아의 경우 직접적 또래괴롭힘의 경우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아의 경우 직접적 또래괴롭힘을 그리고 여아의 경우는 간접적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들(최미경 · 도현심, 2000; 최보가 · 임지영, 1999; Olweus, 1997)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남아들에게 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직접적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강한 것에 보다 큰 가치를 두는 남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상관없이 심리적인 상처가 되어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은근히 따돌리는 간접적 또래괴롭힘은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의해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직접적 또래괴롭힘보다 간접적 또래괴롭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

아의 경우, 치거나 밀고 때리는 신체적인 행위보다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뒤에서 흉보는 등의 간접적 괴롭힘을 보다 민감하게 느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어 자아존중감과 관계없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아의 직접적 또래괴롭힘은 자아존중감의 영향에 의해 심리적인 외로움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이 외로움과 관련성이 있으며, 간접적 괴롭힘이 보다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괴롭힘과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의 연구는 또래괴롭힘 유형을 구분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결과들과 동일하게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기의 부적응적인 변인인 외로움의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후기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빈번하고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 후기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긍정적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아동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차후 아동기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학

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 유형과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서 남녀 아동의 직, 간접 또래괴롭힘이 외로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부모 및 교육기관에 또래관계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심리적인 변인인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양방향적이라는 문헌고찰을 고려해 볼 때, 추후의 연구에서는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도현심 ·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민하영(2002). 학령기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아동학회지** 23(3), 51-63.
-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정영인(1988). 인기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8). 상담사례집.
- 최보가 ·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미경 ·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Alsaker, L. S., & West, S. G. (1993).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 Sage.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Asher, S. R., Hyme,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Asher, S. 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S.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ulton & Underwood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rennan, T., & Auslander, N. (1979). *Adolescent loneliness :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predisposition and theory*(Vol.1). Bethesda, MD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Juvenile Problems Division.
- Cassidy & Ashe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rick, N. R., & Grotpi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 Attributions,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44-254.
- Egan, S. K., & Perry, D. G. (1988). Does low self-esteem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Goswick., R. A., & Jones, W. H. (1981). Loneliness, self-concept, and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107, 237-240.
- Horowitz, L. M., & French,R. de s. (1979). Interpersonal problems of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lonely. *Journal of Consultation And clinicle Psychology*, 47(4), 762-764.
- Inderbitzen-Pisaruk, H., Clark, M. L., & Solano, C. H. (1992). Correlates of loneliness in mid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2), 151-167.
- Jones, W. H. (1985). Loneliness and social behavior.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238-252). New York : Wiley.
- Jones, W. H, Freemon, J. E., & Goswick, R. A. (1981). The persistence of loneliness : Self and other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49(1), 27-48.
- Jones, W. H., Hobbs, S. A., & Hockenbury, D. (1982). Loneliness and social skill deficits. *Journal 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4), 682-689.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Linkages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s at home and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50-1458.
- Loucks, S. (1980). Loneliness, affect, and self-concept; Construct validity of the Bradley lonelines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2), 142-147.
- Minuchin,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 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Olweus, D. (1993). Peer victimization : antecedents

- and long-term outcomes.
- Ouellet R., & Joshi, P. (1986). Loneliness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58, 821-822.
- Peplau, L. A., Miceli, M., & Morasch, B. (1982). Loneliness and self-evaluation.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135-151). New York : Wiley-Interscience, in press.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31-241.
- Patterson, C. J., Kupersmith, J. B., & Griese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Peplau, L. A., & Perlman, D.(Eds.) (1982).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Y : Wiley.
- Rubenstein, C. M.,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206-223). New York : Wiley-Interscience, in press.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L.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0), 472-480.
- Stokes, J. P. (1985). The relation of social network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to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981-990.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Weiss, R. S. (1973). *Loneliness :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 MIT Press.
- Wheeler, L., Reis, H., & Nezlek (1983). Loneliness, social interaction, and sex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4), 943-953.
- Zakahi W. R., & Duran, R. L. (1982). All the lonely people : The relationship among lonelines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anxiety. *Communication Quarterly*, 30(3), 203-209.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8일 채택